

다。
그러나 나의 걱정은 우리의 所願은 어찌 누가慰安을 주며 어찌 본이 成功해 줄 것인가? 언제 하든 지내가 할 일이 오언제 하든 지우리가 할 일이니 걱정해서 무엇하리!
그런즉 무슨 必要로 걱정하며 무엇을 하야 걱정하겠느냐 既爲 所願인 일을 걱정으로 말할 수 없고 病든 몸이 걱정한다고나 올림가 업을 것이오 오래감은 때 青天

「生」

萬物은 流轉한다 刹那刹那에 間斷없이 流轉하며 活動한다 有情이나 無情이나 天體나 地球나 할 것이 온갖 모든 것이 流轉한다 春草 梧葉이며 大地에 喧擾와 沈黙이 모다 時間과 空間을 通하여 流轉하고 있다 이 流轉이야말로 活動이며 生의 表象이다 이 生을爲하여 아니 生의 生답기를爲하여 모든 努力이 있으며 奮闘가 있다 이 生을爲하여 螻蛄의 後을 追하는 黃雀의 舉動과 黃雀의 後을 追하는 王子의 出演이 있어서 競爭의 修羅場을 이루기도 하며 이 生을爲하여 相扶相助의 手腕과 人

을 向하여 怨望하고 걱정한다고 비가 내릴 理가 업을 것이 다。世上 事물 무다 그러하니 樂觀할 일이다。비가 오나 서리가 내리나 그대로 安化할 일이다。그리고 하옵는 成功을 바라보고나 어갈 일이다 그러면 人生은 幸福으로 살 수 있겠으며 江山에는 꽃이 필 것이다。

二九五五・九・三〇

玩 海

類平和의 粉飾이 이러나 계된다 生物界이나 非生物界이나 그 모든 作用은 이 生을爲함이다 참으로 그 活動하는 度數는 植物界에 있어서 是下等植物에 比하여 高等植物이 그 度數를 높였으며 動物界에 있어 도亦是 下等動物에 比하여 高等動物이 더 甚함을 보였이다 人類社會에 도 艸野時代에 그네들의 活動力에 比하여 進歩된 今日에서 더 甚함을 보지나 이 것이 生의 眞理며 必然일 것이다 地球表面에 나서는 草木은 地球表面으로 불어 모든 榮養을 擄取하여 自體의 細肥

를 養하는 反面에 다시 地球에 表面을 保護하며 母胎에 있을 瞬間 불어 母血을 吸收하며 다시 母乳를 吸取하여 그 自體가 生長하는 反面에 다시 母體를 繁殖하는 이 競爭과 扶助를 併行하는 이것이 畢竟 生을爲함인 안이고 바 었일까 人類는 이 生을爲하여 모든 犧牲과 忍耐과 精進을 갖지 아니한다! 모든 制裁와 處分을 하며 個人으로 社會로 國家로 서로 서로 모든 場面이 이러나 며 物質界로 精神界로 서로 서로 온갖 問題가 交換된다 이 生의 生답기를爲하여 宗教와 藝術과 모든 主義가 있다 이 生을 永遠로 無量數劫까지 延長하려는 것이 宗教일 것이며 이 生을 生답게 하자는 것이 藝術일 것이다 生을 認許하고 批判하는 것이 哲學일 것이며 이

生을 損失없이 進展하자는 것이 倫理며 道德일 것이다 이 生을 覺하고 悟한 이는 聖人이며 이 生을 迷하고 醉한 이는 凡夫일 것이다 죽는 것도 生을爲함이고 사는 것도 生을爲함이다 行住坐臥와 語默動靜에 어는 것이 이 生을爲하지 안음이 있으라 風雪를 무릅쓰는 艸木도 그 新生을 求함이 어던 生을爲하고 生을爲하는 人類이라 過去도 現在도 未來도 모든 時間을 通하여 生을爲하여 生을 追求하는 것이 우리 人生이다 그림으로 우리는 堅實한 土壘上에 立脚하여 着實한 努力과 精進을 가주고 이 生을爲하여 生의 生답기를爲하여 生을 다하는 것이 流轉活動하는 人生의 本意일 까한다

天下에 生하노라

姜 裕 文

東嶺에 한낱 松實이 쌓인다 將次 凌雲巨材를 보리로
다
吾人은 잠든 지 오래였다 또 流浪한 지 오래였다
日高三丈 窓外에 人馬가 분주하니 앞길에 밧부도

다 世界各國은 駭駭然疾走하야 曰經濟曰政治曰科學曰哲學曰宗教 무엇이었도다 自力擴充을爲하여 人類文化를爲하야 最善의 努力을 水火中에서 다하도다 驚神泣鬼할 各種發明 眞理가 吐舌할 各種思索이 모다가